

# 한은 '빅스텝' 주목 ...전문가는 부정적

전문가들 “실제 빅스텝 가능성은 낮아”

7월~8월 물가 급등시 빅스텝 열어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빅스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물가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상황까지 보면 그린(0.5%포인트 인상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우리도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번 회의 끝나고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닌 거 같다”며 “5월 금융통화위원회 상황을 보고 7~8월 경제 상황과 물가 변화,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지 등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5월 빅스텝 가능성은 있지만, 7~8월에는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만 해도 '빅스텝'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서면 답

변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금리인상을 늦게 시작한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한 번에 0.25% 포인트 이상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해 빅스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잡아우기 위해 매파적(통화 긴축선후인)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종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총재의 발언은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둬 물가 기대심리를 잡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연준이 이 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부인한 후 오히려 시장에서 물가가 안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등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전략적 발언을 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미 연준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실제로 '빅스텝'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도 둔화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만 보고 '빅스텝'을 단행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시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해왔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1%포인트 인하한 적은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시에는 '빅스텝'을 단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5월과 7월 금통위에 이어 8월에도 0.25%포인트 쏙 올릴 경우 충격이 덜 할 수 있는데 구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올릴 만큼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7, 8월 물가가 급등할 경우 '빅스텝'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뉴스

## 전남 외식업 사장님 풍수해보험 무료

‘배달의민족’ 서 자부담분 지원…1만 명 선착순 모집



전남도는 배달의민족, 현대해상과 함께 자연재난으로부터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기 위한 풍수해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폭탕, 해일, 대설, 지진, 8개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므로 3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

제들이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분 30%를 전액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이 다가올 자연재해에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전남지역 음식업체 지원액은 3억 원이며 1만 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가입을 바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현대해상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에 전화(070-8670-1045)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000만 원(시설 및 집기 4000만 원 · 재고자산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김운형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현실적인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1700여 건으로 전국 17개 시 · 도 중 9위에 그쳤다.

/권형안 기자

## 변동금리 선택 고민...주담대 8% 목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 6%대 중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오르면서 7%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금리 상승기에도 변동금리 선택을 고민하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호합형) 금리는 연 4.00~6.40%로 집계됐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6%대를 넘어서 7%대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3~4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을 감안하면 8%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차주들의 변동금리 대출 선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3월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5%로 1월 76.3%, 2월 77.9%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0%로 2014년 3월 (78.6%) 이후 가장 높았다.

금리 상승기에도 금융소비자의 변동금리 선택이 늘어난 것은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29~5.136%로 나타났다. 고정금리에 비해 금리 상단

이 1.2%포인트가량 낮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1%포인트가량 나는 만큼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현재의 금리 차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변동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80~5.01%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상단이 5%를 넘어섰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5일 주담대 변동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했으나 상단 금리가 재차 5%대로 뛰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2019년 5월(1.8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픽스는 한 달 만에 0.12%포인트 뛰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채권시장에서 금융채 등의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 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보조금 지급기준 1850→1750원…9월말까지 적용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경유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이다.

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유행하는 등 가파른 상승에 보조금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가격을 100원 낮춰 1750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

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기준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이 55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 5000대, 버스 2만 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 세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



**거리두기 해제에 매출 상승한 숙취해소제 시장**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숙취해소제 시장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17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되어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의 ‘컨디션’ 매출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3월부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 광역시 청약 경쟁률 ‘극과 극’...부산 39대1 · 대구 미달 속출

대전 12.1대 1 · 광주 8.7대 1...”윤 정부 지방 공약 영향”

티지’의 경우 117가구 모집에 6만 5110명이 몰려 경쟁률이 58.9대 1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보합 내지는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청약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분양 단지마다 미달 사태를 겪으며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리얼 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산 분양 시장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신규 분양은 1782가구 모집에 6만 9503명이 신청해 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5대 광역시 전체 청약률을 기록했고, 광주와 울산도 같은 기간 경쟁률이 각각 8.7대 1, 7.9대 1의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마동 ‘호반씨 및 그랜드 센트럴’이 492가구 모집에 7915명이 신청해 1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중구 선화동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 15.6대 1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 올해 평균 경쟁률은 13.3대 1(7528가구 모집에 10만

403명)로, 작년 같은 기간 경쟁률 9.8대 1(8474가구 모집에 8만 2676명)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는 줄었지만 청약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국민 약속이 5대 광역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올해 분양에 나선 단지마다 줄줄이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구 지역은 3045가구 모집에 1132명만 신청했을 정도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 2월 대우건설이 공급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982가구 모집에 126명이 신청하는데 그쳤고, 동부건설이 지난 3월 분양한 ‘수성 센트럴 레빌 어반포레’는 308가구 모집에 고작 33명이 신청하는데 그쳐 275가구가 미달됐다. /뉴스

## 광주은행 제12기 대학생 홍보대사 떴다



광주은행은 17일 제12기 대학생 홍보대사 50명을 선발해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

주 · 전남 지역 소재 대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브랜드 홍보, MZ세대와의 소통,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한다.

또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광주은행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지금까지 총 350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를 배출해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